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명곤



6·2 지방선거로 인해 정치권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막강한 여당에 의해 지배되던 중앙과 지방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상호 공존 또는 대립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의 갈등은 만만치 않게 증폭될 전망이다. 야당은 당장 내각총사퇴 요구와 함께 정권의 핵심 정책에 대해 더욱 강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과 함께 여권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인적쇄신론과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에 대해 거부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의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6월 국회에서부터 철회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기조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의 친이계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인

배 띄운 민심은 배를 띄기도 한다

삭한 만큼 개선할 부분은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은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정안을 고수하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에 비해 한나라당에서는 수정안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술술 흘러나온다. 이처럼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치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과 타협과 절충을 일삼아야 할 구조로 변한 것이다. 이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오직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길뿐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천안함 사건, 교육 정책 등의 시행 과정에서 민심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매서운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야권에 대해서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분열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민심이 높았다. 그러나 야권도 그러한 민심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민심의 매서운 경고이며 심판이었

다. 정치권은 이 같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예전처럼 민심을 자신들 위주로 해석해서 불리한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고, 유리한 민심만 귀에 담은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진정한 민심을 얻을 수 없다. 2010년 올해 초에 정치권에서 자주 오르내린 사자성어로 '여민동락(與民同樂)', '상하동락(上下同樂)', '수능재주역능복주(水能載舟亦能覆舟)'와 같은 말들이 있었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그 말들이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정치권을 휩쓸었는지 실감하게 해주었다. '민심과 함께하지 않고(與民不同樂)', '권력자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지 않으면(上下不同樂)' '배를 띄운

민심이 언젠가는 배를 띄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권은 민심의 흐름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을 것이다. 말로는 언제나 민심을 들먹였지만, 그 민심이 얼마나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잘못 파악된 흐름인지 알고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고, 시중에 떠도는 말들도 진의를 알기 어렵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민심의 흐름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그 강물 속보이지 않는 곳에 흐르고 있는 '바다 민심'이 자신들이 띄워 놓은 배를 띄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민심은 사심을 갖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해 올바르게 일을 할 정치 일꾼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강물의 깊이는 바다으로 내려가 바다 민심을 찾아내어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일꾼을 원한다. 민심과 함께 웃고, 민심과 함께 울고, 민심과 함께 아파하는 일꾼을 원한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 배를 뒤집어엎을 무서운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나로호 발사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

어제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나로호(KSLV-1)의 발사가 또다시 막판에 중지됐다. 발사대 주변 소방설비의 오작동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나로호의 성공 발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 발사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실패를 교훈삼아 철저한 보완과정을 거쳤으나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 우주산업은 기계·화공 등 전통적 산업분야의 기술 뿐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자동차보다 30배나 많은 30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만큼 우주발사체의 성공발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엔데버호도 6차례 연기됐다. 발사에 성공했으며, 유럽과 일본, 인도 등 우주선진국들도 수차례 발사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철저한 준비로 발사를 성공시킨 경우가 많다. 지금은 발사 연기에 실망하기보다 성

공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우주기술은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실패로 이어지는 만큼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와 철두철미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러시아 측 기술진과 긴밀한 협조 아래 필요하다면 발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발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21세기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핵심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강화도 직결된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주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로호는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자 꿈이 담긴 대한민국의 상징물인 셈이다.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진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주로 향한 도전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에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스폰서 검사' 재발방지 제도개혁이 먼저다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총장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관련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또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를,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 경고할 것을 요구했다. 진상규명위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상당수 검사가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이번 사건을 누설한 정도제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모 부장검사는 성접대를 받았으며 한 전 부장은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규명위는 아울러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문화 개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찰총장부를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등 감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규명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는 그동안 상역으로 여겨졌던 검찰 내부의 비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대와 현급까지 받았는데도 대가성이 아니고 직무유기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술방망이' 결론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만 키울 뿐이다.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몇몇 검사만을 징계한다고 앞으로 '스폰서 검사'가 근절될 것인지의 의문도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스폰서 검사' 파동은 기소 독점주의 등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불거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별검사제, 수사-공소권 분리 등 여러 방안들을 모두 꺼내놓고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도입할 때 비로소 '스폰서 검사'와 같은 비리를 막을 수 있다.

말했다. 규명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는 그동안 상역으로 여겨졌던 검찰 내부의 비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대와 현급까지 받았는데도 대가성이 아니고 직무유기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술방망이' 결론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만 키울 뿐이다.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몇몇 검사만을 징계한다고 앞으로 '스폰서 검사'가 근절될 것인지의 의문도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스폰서 검사' 파동은 기소 독점주의 등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불거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별검사제, 수사-공소권 분리 등 여러 방안들을 모두 꺼내놓고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도입할 때 비로소 '스폰서 검사'와 같은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의료 칼럼

황인남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것은 예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용을 위해 우유와 진주가루 등을 사용하며 노력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도 미용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외모뿐만 아니라 바른 치열, 하얀 치아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하얀 치아를 위한 치아 미백에 대해 알아본다.

도 길지 않다. 치아 미백은 환자가 낮이나 밤, 특히 취침 시간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자가치아 미백술의 치료과정을 살펴보면 내일 첫날 사진 촬영과 치아 색상의 기록, 인상 채득을 실시한다. 채득된 인상을 이용해 투명장치를 제작하고, 다음 내일 시 투명장치가 환자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고 미백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대부분의

기고

김병채



광주교육은 지난 6년 동안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전국 최상위의 성적을 거뒀다. 타지역 학부모들이 바라볼 때는 부럽기 짝이 없을 테지만 광주에 사는 학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나. 광주에서 선택은 둘 중 하나다. 공립 또는 사립학교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일까? 매년 일방계 고등학교 배정 시기가

자를 대상으로 반 배치 고사를 실시한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다. 이들의 성적이 과연 고3이 돼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의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현재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광주일고의 성적을 보면 중학교 내신 5% 이내에 드는 학생의 수가 사립고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그들이 졸업할 때면 서울대부터 시작하여 연대, 고대 등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하

고교 선택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되면 공립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은 울상을 짓는다. 자신은 사립학교로 가고 싶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는 사립학교뿐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절에서 고교 선택의 기준으로 착시현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다. 70년대 고교 평준화 이래로 광주에서 명문고교 사라졌다. 그 후 사립고교가 발 빠른 대처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신 흥 명문고'라는 기치로 광주 교육을 대표하게 됐다. 모든 게 공립고교의 금쁜 행보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시작한 우수 학생의 사립고교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금에 이른 것이다. 착시현상이란 대학입학 성적의 결과로 우수학교와 비우수학교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학교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교육활동으로 학생의 출발점 단계의 성적을 얼마나 이끌어 올렸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2월에 고교배정

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사립학교에 견주어 봤을 때 대등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변화는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건설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우수교사들의 확보는 무엇보다 내세울 만하다. 그리고 30~40대의 젊은 교사들도 열정적이다. 우리 학교의 기숙사는 밤 12시30분까지 불야성이 이룬다.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는 자상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꾸준히 타지역의 우수 교육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자세 또한 빠뜨릴 수 없다. 다양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학입시에서 수능성적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신관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교선택에서 쏠림현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광주제일고 교장>

치아 미백이란?

치아미백의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부적인 변색요인으로는 커피 등의 착색 음료나 음식, 흡연 등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치아 발생과정 중 과도한 불소의 침투에 의해 야기되는 불소증, 치아 발생 과정 중 일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변색을 들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원인 없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가 약간 누런색을 띠 수도 있다. 치아 미백 치료의 결과나 만족도는 착색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만족스럽거나 상당한 개선된 결과를 얻고 있으며, 특히 노화에 의한 치아미백의 경우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다. 치료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롭지 않을 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은 매우 간단하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자가치아 미백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변색의 정도에 따라 보통 4~8주의 기간이 필요하며, 치료 내원은 일주일에 1번 정도이며 내원시 소요되는 진료시간

경우 하루에 4시간 정도 장치를 끼우게 된다. 약제는 날마다 교체해 장착하면 된다. 치료 시작 후 1주일 간격으로 내원해 색 변화를 확인하고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끔 미백을 하면 치아가 시리다는 걱정을 하는 환자가 있는데, 자가치아 미백 과정에서 민감성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일시적이며, 며칠 동안 치아미백을 중단하거나, 착용시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치아 민감성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재 치료에서 사용하는 약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미백용 제품들과는 달리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며, 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한번은 누린 이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얀 치아와 환한 미소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치아 미백은 어떤 나이에도 가능하며,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미백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남대 치과병원 보존과 교수>

유통질서 해치는 의류업체 맹처리 영업 제한해야

요즘 도심지 길거리에 봉고차를 세운 뒤 차도와 인도 사이에 수백개의 스탠드형 옷걸이를 세워놓고 팔거나, 도심의 빈 점포를 며칠간 임대해 맹처리를 하는 의류 도매업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정품 브랜드 의류를 파는 영업점 업주로서 이 같은 맹처리 의류 업체들이 유통질서를 망가뜨리고 마구잡이식 영업을 하는 것을 제한할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업자들은 대부분 외지 업자들이 타지방으로 돌려 회사 폐업

등을 이유로 제품을 초저가에 팔고 있으나 제품의 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반쯤,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관할 단속기관에서는 맹처리 업체들이 주택가 인근에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고성방가 등 소음공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을 해야만 한다. 그대야만 맹처리 업체의 반짝 상술에 현혹되는 소비자들이 없어질 것이고 업체들의 각종 불법·탈법 영업행위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목동

거리에 침범하는 행위 불결... 시민의식 성숙했으면

친구와 함께 이맘때면 알만한 유명한 도넛츠 가게에 들러 빵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 바로 옆에는 여행은 온듯한 외국인 남자가 앉아서 도넛츠를 먹고 있었다. 우리도 빵을 가져다 먹고 있는 순간 갑자기 뒤쪽 테이블에서 "카악"하는 가래침 뱉는 소리가 들렸다. 본인은 휴지를 입에 대고 작게 한다고 낸 소리라는 듯 조용한 도넛츠 가게에서는 크게 들렸고 너무 불쾌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와 도넛츠를 먹던 외

국인 남녀는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러잖아도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침을 뱉어 대는 것 뿐만 아니라 담배꽂이나 쓰레기를 거리낌없이 거리에 버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몹시 나쁜 행태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들이 쓴 한국 여행기에도 아무데서나 함부로 침을 뱉는 낙후된 나라라고 쓸 것이다. 이런 정갈 올림퍽을 치르고,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청결과 공중예절을 지키며 생활하자. ▲좌혜경·광주시 동구 산수 2동

無等鼓

제(齊)나라 환공(桓公) 때의 일이다. 어느 해 봄, 환공은 재상 관중과 대부 습봉을 대동하고 고죽국(孤竹國 : 하북성) 정벌에 나섰다. 전쟁은 예상외로 길어졌다.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에야 끝이 났다. 지름길을 찾아 귀국하다 길을 잃었다. 관중이 말했다. "이런 때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老馬之智可用也)." 즉 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었다. 그 뒤를 따라가자 큰 길이 나왔다. (乃放老馬而隨之遂得道行)

를 스승 삼아 배우는 것을 수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 엇그제 제18대 국회 하반기 의정을 맡으면서 "노마지(老馬之智)라는 중국 고사처럼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6선의 의정경험을 발휘해 세종시, 4대강, 헌법 개정 같은 국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찾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같은 이미 열려있

늙은 말의 지혜



다.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이제 그만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고루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하라는 늙은 말, 개미들의 메시지다. 소장파들의 쇠신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아직 재갈을 가겠다는 투다. 박 의장도 심기가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늙은 말을 자신에게 대비시켰으면 현명한 대처법을 내놓지 않을까.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1부 2200-61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사회 2부 2200-69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사회 3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부 2200-960
정 치 부 2200-641	사회 4부 2200-663	여론매부 2200-679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회 1부 2200-612	사회 5부 2200-663	체육팀 2200-663	<F A X 227-9500>
<F A X 222-4262>	사회 6부 2200-691	사 진 부 2200-691	<F A X 227-9500>
	사회 7부 2200-571	조 사 부 2200-571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